

새로운 건축을 향하여

이 책은 르 코르뷔제의 건축적 이론과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입니다. 르 코르뷔제는 건축은 인간과 환경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중점으로 한다.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요시하고 빛과 공간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말을 하였습니다.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비례를 중요시했습니다. 르 코르뷔제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으며 프랑스 건축가 페레와 함께 일하며 경험을 쌓아 그가 완벽한 건축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다음으로 르 코르뷔제는 비례에 관해 연구하였고 도시계획에서도 공부하였습니다.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을 도전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.

평면은 건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편안함과 행복 가능성을 상상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

이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르 코르뷔제에 대해 얘기는 들었지만, 생애나 구체적인 르 코르뷔제의 관점으로 보이는 생각이나 철학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,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닌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, 자연을 중요시하고 조화를 이루어 건축한다는 점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. 시대가 바뀌고 방향이나 그 시대에 중요시하는 가치관들이 있을 텐데 언제가 기반, 기초를 생각할 때 르 코르뷔제가 추구한 비례나 건축물이 많이 도움이 되고 아직까지 그의 말과 사용했던 그것들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정말 노력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